

황금연휴 끝...국감 전쟁 시작된다

與 “李·朴 정부 적폐 청산”
한국당 “DJ·盧는 新적폐”
국민·바른정당 정책 검증
12~31일 여야 격돌 예고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이번 주 중반인 오는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 감독에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여야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한층 강화할 데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라는 기조 아래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각종 폐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을 다 찾아내고 없애고 소독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맛골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대표적인 공격 포인트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



연휴 잇은 국감 준비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이를 통해 전 정권의 공영방송 인사가 개입 및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에 맞는 공격·방어 전략을 펴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에는 적폐로 맞선다’는 생각에 따라 ‘원조 적폐’와 ‘신 적폐’를 반격 카드로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과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등을 꼽았다. 또 북핵 위기와 인사 문제, 원전 중단 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이른바 ‘신 적폐’

로 규정했다. 이미 한국당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TF(태스크포스)’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대책 TF’를 꾸렸다. 동시에 한국당은 여권의 적폐 청산 작업을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철저한 정책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 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 균형 발전’을 국감 중점 의제로 설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안

전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라며 “가령 석면 안전의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교의 석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안보 전략’과 ‘포퓰리즘 정책’도 공격한다는 생각이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인사 및 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태국 국왕 장례식 野 특사 파견

단장 박주선 유력·바른정당 지상옥 확정...주중 명단 발표

청와대가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의 장례식에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 등 야당 인사들을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 부의장 등이 실제 특사로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야당 의원이 특사로 파견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왕 장례식을 앞두고 태국 주재 한 국대사관에서 특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내부 회의를 거쳐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안보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정 파트너로서 협력을 다짐한 만큼 협치의 폭을 넓히는 뜻에서 야당 의원을 특사

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결정한 뒤 각 당과 개별 접촉을 통해 특사로 보낼 의원 명단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의장이 특사단 단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바른정당 지상옥 의원도 특사단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은 특사로 누구를 파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역시 긍정적인 검토를 전제로 구체적인 명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적인 특사 명단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이 있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면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주선 “정부, 남북 핫라인 재가동 노력해야”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9일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뤄지면서 유사시 북측과 즉각적이고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이라고 박 부의장은 설명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핫라인 재개는 대화의 시작점이며,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핫라인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환경부, 흑산 공항 건설 협조해달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흑산 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통상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는 1을 훨씬 초과한 4.38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도 환경영향 평가에 가로막혔다”면서 “경제성도 높고 철새 서식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 흑산공항에 대해 발목을 잡으면 호남 지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이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썼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MB정부 ‘DJ 노벨상 취소 모의’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를”

광주·전남 정치권 촉구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모의한 의혹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계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 9일 “사악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DJ 노벨평화상 취

소 모의는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DJ 추모열기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된다는 판단 아래 고인을 헐뜯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공작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강력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모의를 했다

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MB는 국정원의 조직과 돈을 정권의 선전 부대로 이용했고 4대강 사업으로 20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날렸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10년 공든 탑마저 무너뜨렸고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의 근원도 MB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의식도 품위도, 명예도 없는 MB의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도 관련 성명과 논평 준비에 나서는 등 지역정치권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노벨상 수상을 선양하고 기려도 시원함을 판매 같은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모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 소속을 떠나 이런 만행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수사 중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28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석사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통합예술치료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